

01 교회소식

생명의 말씀 인터넷과 책으로 전해져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성결의 복음과 세계적 인 스테디셀러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보며』.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11

모세의 선 (1)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으며, 연단 중에도 중심에서 감사했다.

03 BOOK

참된 복을 받으려면

영생에 이르는 참된 복에 대해 일깨워 주는 신앙의 이정표, 예수님의 산상보훈 '팔복'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해외 만민 청년들

에스토니아, 미국... 생명의 꿀을 공급받으며 주를 위한 꿈을 키워가는 아나스타시아 자매와 김재운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578호 2013년 4월 2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웹사이트를 통해 전해지는 성결의 복음

영적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www.manmin.org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와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GCN 방송 홈페이지(www.gcntv.org)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을 제공하고 있다.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정기예배 설교

는 물론 사랑장, 팔복 등 주제설교,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 등 신앙의 기초 말씀, 창세기, 레위기, 욥기, 요한계시록 등 강해 설교가 업로드 돼 있다.

그 밖에 부흥성회 설교, ARS(자동응답서비스) 3분 설교, 구역공과, 신앙칼럼도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만민뉴스(www.manminnews.com)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설교 텍스트를 볼 수 있다.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산실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 홈페이지 설교란에 접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정기예배 설교가 업데이트되는 매주 화요일에는 접속자 수가 가장 많으며, 한국어 설교는 물론 영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교회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홈페이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김항열 선교사는 “미국 이민생활 중 영적 곤고함에 빠져 있을 때,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은 ‘천국’ 설교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영혼의 갈함을 해소해 준 생명수였다. 그 뒤 2천 5백 편 이상의 설교를 듣

는 동안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 귀한 말씀을 많은 이에게 전하고자 만민의 선교사가 됐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창세기 강해를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경위 정호산 형제는 이후 우리 교회에 등록해 생명의 꿀을 공급받으며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독일 이리나 바이더 성도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어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노력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처럼 이재록 목사의 설교는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크게 영향력을 끼친다. 이는 그가 오랜 병고 끝에 하나님을 만나 기도와 금식, 간절한 사모함으로 매달려 하나님께 친히 풀이 받은 영적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결의 복음은 어디서든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편리성을 갖춘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16개 언어로 발간된 스테디셀러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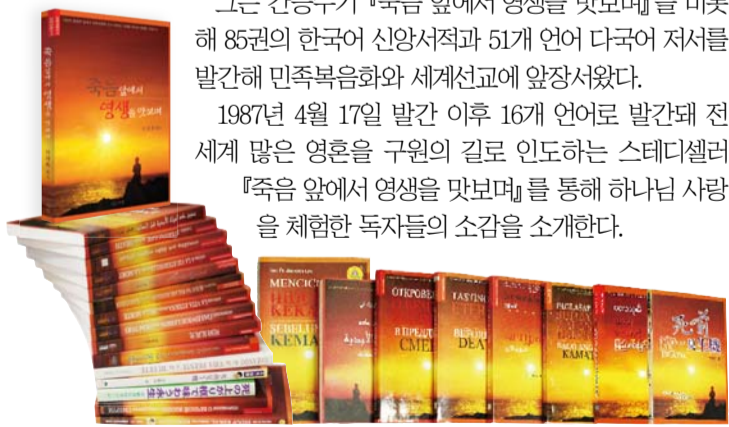
하나님을 만나 솔하고 중한 질병들을 치료받은 뒤, 세계 곳곳에서 연합대성회를 인도하며 권능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세계적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

그는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보며』를 비롯해 85권의 한국어 신앙서적과 51개 언어 다국어 저서를 발간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왔다.

1987년 4월 17일 발간 이후 16개 언어로 발간돼 전세계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스테디셀러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보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독자들의 소감을 소개한다.



전 세계 220여 개국에 방송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인도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보며』 저자 이재록 목사



www.urimbooks.com

“아랍어 판이 서점에 유통돼 레바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소망을 주는 축복의 메신저다. 이재록 목사의 여러 저서를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이란어로 번역 출판해 중동 지역에 널리 보급하고 싶다.”

- 레바논 아나니아 카스타니안 목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책은 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재록 목사의 일대기에서 그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 콜롬비아 로살바 로드리게스 데 링곤 사장

“이 책 133페이지를 읽다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뜨거움과 빛을 느꼈다. 천사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얼마 후 천사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계속 느낄 수 있었다.”

- 미국 따찌아나 모글리스 교수

“왜 하나님께서 이재록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고난과 질병의 연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인류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역경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말레이시아 류이화 장로

“몸과 마음이 지쳐 영혼의 쉼터를 찾고 있던 중 이 책을 대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동안 어스레 책장이 눈물로 범벅돼 있었다. 마치 어두운 길을 헤매이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내 가슴은 고동치기 시작했다.”

- 온두라스 나디아 메리아 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

모세의 선 (1)

“믿음으로 모세는 ...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24~26)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영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들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해 백성을 인도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곧 모세이지요.

이처럼 모세가 중요한 시점에 택함 받아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중심과 지극한 선(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세의 선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마음

요셉 때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 온 이스라엘은 정착한 지 400여 년 만에 번성하고 강대해져 그 수가 수백만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애굽 왕은 점점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에 위협을 느껴 그들을 강제노동시키며 학대했지요. 그들이 더욱 번성하자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까지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간 모세를 숨겨 키웠지만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냈지요. 애굽 군대에 발각돼 칼에 죽기보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애굽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이를 강변에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어머니 요게벳을 추천해 친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지요.

이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역사해 가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에게서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애굽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기에 왕자의 권세는 막강했지요.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 있는 한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 한 편에는 늘 자기 민족에 대한 연민이 떠나지 않았습니.

어느 날이었습니.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광경을 보고 모세는 의분이 일어나 그만 그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되지요. 만일 모세가 자기 안일만 생각했다면 동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비록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잃을지라도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선하다' 인정하시며 출애굽의 지도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면 어려운 처지가 돼도 비교적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부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궁핍해지면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 극복하기가 쉽지 않지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이제는 강대국 왕자로서 누리던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험한 광야에서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지요. 도망자로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신세가 됐습니.

2. 연단 중에 하나님을 믿으며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 양 무리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정착되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부터는 마음의 연단이 시작됐지요.

자신은 가진 자 같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허함과 적막함이 밀려오면서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졌지요.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손에 쥘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예전에 자신이 누리고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왕궁에 있을 때와 달리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만 비판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 오히려 철저히 자신을 낮쳤지요.

만일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떨겠습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현실 앞에서 오직 낮아지며 감사만 할 수 있겠는지요.

모세는 예전에 호화로웠던 생활을 동경해 '내가 어찌 그랬던고' 하며 후회하지 않았습니. 자신이 선택한 길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지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신다.'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드시지 않으면 자기 목숨 하나도 연명할 수 없음을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고달픈 삶 속에서도 배곯지 않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지요. 잠시 몸을 누

이고 쉴 수 있음에 감사했고, 때론 찬 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서도 쉬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도 감사했고,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도 않았습니. 모세는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왔습니.

이처럼 모세가 연단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마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다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왕자로서 당당한 모세가 아니라, 광야의 양치기로서 철저히 낮아진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연단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혹여 여러분은 연단받을 때 '내가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하나.' 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낙심해 절망하지는 않는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시간은 무려 40년이나 됐습니. 그는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않았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환경에 중심으로 감사만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자기가 죽고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7:3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나 여호와와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마음 중심에서 감사한 모세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에 오직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좋은 그릇이 돼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 5528, 504, 643, 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 / 5, 51, 150, 505, 507, 5531, 5534, 5601, 5616, 5617, 5620, 5621, 5623, 5624, 5625, 5627, 5633, 5713, 6512, 6635, 금천06 / 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3:00 PM

주일 저녁예배 11:00 PM

공요철야예배 7:00 PM

수요예배 8: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9: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 열릴야 기도회 9:00 PM (매일 /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참된 복을 일깨워 주는 말씀 '팔복' *The Beatitudes*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보배 같은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한다. 그 중에 '팔복'은 잠시잠깐이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복, 곧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참된 복을 일깨워 준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지표가 되기 바라며 '팔복'에 대해 살펴본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선포를 기념해 세워진 팔복교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 5:3

심령(心靈)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존심이나 교만, 이기심, 욕심 등 악이 없어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 상태를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 하나님 능력 가운데 쉽게 변화될 수 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죄악을 벗어 버림으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참되고 영원한 복, 곧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자신의 슬픔과 욕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육적인 애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인 애통을 의미한다. 영적인 애통은 무엇보다 영적인 사랑이 임해야 한다. 바로 마음의 죄를 발견하거나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해 돌아보는 회개의 애통, 믿음의 형제와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이다. 이러한 애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시고 천국에도 값진 상급으로 쌓아 주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영적인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솜털처럼 부드러울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다. 선하고 온화한 마음에 덕이 있어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포용하므로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니 그만큼 천국에서 크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 5:6

의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곧 선과 진리 자체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이나 물을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한다. 곧 영적으로 배부르고 목마름을 시원케 하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양식삼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의에 주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계속해 말씀을 양식 삼고 진리대로 행해 나가면 비진리가 전혀 없는 성결한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이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 5:7

설령 상대가 이유 없이 내게 악을 행한다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홀의 마음이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을 쫓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공홀을 베풀 수 있다.

공홀히 여기는 마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용서의 공홀, 징계의 공홀, 구제의 공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공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공홀히 여기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마음의 청결은 지식과 교양이 있어 겉으로만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악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진리로 채워가는 만큼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 응답받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모든 분야를 의미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되 생명까지 내어 주는 것이 영적 의미의 화평이다. 죄의 담을 헐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미움 등 비진리를 벗어버림으로 자신과의 화평을 이룰 때야 다른 사람과도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범사에 자신을 희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을 때 화평을 이뤄 하나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영적 권세와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마 10:1). 곧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참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 5:10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때론 핍박을 받기도 한다(딤후 3:12). 빛을 비추이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빛 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원수 마귀 사단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은 그들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해 빛에 속한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주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핍박을 이겨냄으로써 신앙이 성장해 온전해지면 더 좋은 천국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__이재록 목사 저서 『참된 복을 쫓는 자』 중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수요프로그램 안내

2013.4.121~4.27

4

April
www.gcntv.org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3
- 믿음의 분량 10-14
- 3차 영혼육 13-14
- 창세기 강해 64-68
- 천국 28-32
- 죽은자를 위한 세례 1-2

GCN TV 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2-6 (이수진 목사)
- 행복을 위하여 (이수진 목사)
- 나에게 속지말자 (이수진 목사)
- 소망중에 변화되어 (김수정 목사)
- GCN TV 특강
- 십자가의 도 1-5 (정구영 목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플레이즈(2) 1-6
- 찬양과 경배 (3) 41-47

해외성회 시리즈

- 페루 연합대성회 1
- 독일연합대성회 종합편

간증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19,21,23,25,45
- GCN 간증 스페셜 15-16,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공부도, 신앙도 우등생이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김재윤 형제 (미국 캘리포니아)



동생 김찬영 형제(우)와 함께

2010년 8월, 우리 가족은 네바다 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이곳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매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함께 드렸지요. 이를 계기로 저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성경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해 나아갔지요.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미국 서부 명문대인 UCLA 수학과 3학년에 편입을 했고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UCLA의 생활은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아주 바빴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정 시간을 할애해 캠퍼스 전도에 힘썼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큰 소망은 믿음의 성장을 신속히 이뤄 목자의 힘이 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물론, 영혼들을 위해 1시간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동차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요. 등하굣길에는 mp3 플레이어로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생 김찬영 형제는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 있는 우드브리지 고등학교 2학년(10학년)입니다. 이 학교는 캘리포니아 명문학교이지요. 동생은 많은 시간 학교 과제와 공부 외에도 여러 클럽 활동과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한 구절 암송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지요.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2012년 교육 우수생으로 선발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 상은 열정을 다해 학습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저와 동생은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물론, 신앙생활에서도 우등생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오 편지



요즘 저는 매우 행복하합니다.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리고리 콜레소프 목사님을 통해 저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님 권능의 사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6월, 당시 병원 검진에도 원인 모를 복통으로 인해 6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갖 질병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는 제게 무척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지요.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종 눈물을 흘리며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우치게 됐지요. 무엇보다 병은 죄로 인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회개하며 치료받자 금식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7월 2일,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 시 인터넷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복통이 깨끗이 치료됐지요.

그 해 10월 30일과 31일, ‘2010 이재록 목사 초청 에스토니아 연합성회’가 개최돼 저는 사모함으로 참석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기독교 역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지요. 감사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어 단에서 기도해 주실 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될 뿐 아니라 각색 질병이 치료됐지요.

성경상에서나 있을 법한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시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권능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러시아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들으며 신앙이 날이 달라졌지요.

“이곳 에스토니아에서도 변화의 물결을 잘 타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콜레소바 자매 (에스토니아 진리의 근원교회)

예배 동영상으로 본 만민중앙교회는 주님 사랑으로 충만했고, 마치 천국을 연상케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지요. 저는 만민중앙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재정의 문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2011년 여름, 직접 와서 본 만민중앙교회는 상상 그 이상이었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만민 하계수련회’에서는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지요. 2012년에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공부 잘하는 비결’을 듣고 그 말씀에 적용해 공부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타르투 국립대학에 입학했지요.

저는 만민중앙교회 주일예배와 금요철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려면 시차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지요. 특히 지난 3월 18일부터 진행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동참해 성경을 위해 불같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땀과 눈물로 흠뻑 젖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충만히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5202-5547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림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인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점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창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